

관대한 자세로 북한의 미술을 대중에게 고스란히 보여줘야

최석태 미술평론가

culture | art

근래에 들어 문학이나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가 부쩍 활발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유독 미술분야의 교류는 저조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밀수에 비유할 정도의 행사들로 진행되었기에 교류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이다.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미술분야 교류에 남북한 전체를 무대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으로서의 미술품 교류의 한계

너무나 당연하여 뻔발 같은 말이나, 교류는 오고 가는 것을 말한다. 무역으로 친다면 세금을 무는 상품의 오고 감을 교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른바 밀수로 오고 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교류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미술분야 남북 간의 교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밀수처럼 비공식인 것이 특징이다. 제대로 된 교류가 없다시피 했으며, 그러므로 더 높은 단계의 교류로 옮겨간 다른 분야와 달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이런 현상이 빚어진 까닭과 이런 저조현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필자가 보기에 다른 분야의 교류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술분야의 경우, 거의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여겨진다. 문학이나 영화 같은 분야의 경우, 인적인 요인이 빠지더라도 복제가 쉬운 탓에 비공식, 공식을 가릴 필요도 없이 교류가 어렵지 않다. 문학의 경우 비공식적으로라도 잡지나 단행본 등 지면을 통해 교류를 한 후에, 실무자들이 만나는 경로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근래 문학분야는 작품들은 물론, 인적인 교류까지 도달하여 교류의 차원에서 보자면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서 부러운 상태다. 공연예술의 경우에도 비슷해서 근래는 오히려 좀 잦아든 것 같지만 연주자나 연구자가 적지 않게 오가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미술분야의 남북간 교류는 다른 분야와는 현격히 다른 상태에 놓여 있음은 분명하다. 앞서 제대로 된 교류가 없다시피 했다고 한 필자의 말이 틀리다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런 저런 명목의 북한미술전람회들이 열렸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유했듯이 비공식적이며, 심지어 밀수에 비유할 정도의 행사이



북녘작가 울산미술대전 전시장

었기에 교류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인 것이 특징이었다. 내용을 훑어보고 두 가지의 예를 들어봄으로써 현황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술품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 사례다. 1992년 5월 하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약 10일 가량의 기간 동안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는 '그리운 산하'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조선화, 유화, 공예 작품들을 대규모로 선보였다. 전시장소도 관립이라고 할 곳이었고, 공동주최이지만 유수의 신문사가 주최자로 나와 있어서 일반적인 관람객은 흡사 남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미술행사로 여기기 쉬운 행사였다. 독자를 위하여 사정을 좀 자세히 드러내 보자면 이렇다. 이 전시 자체는 물론 북한의 예술품을 남한에서 선보이는 것이므로 정부의 당국자, 즉 통일원의 허가를 받았다. 다른 곳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왜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전시 행사에 선보인 미술품들은 고유한 의미의 미술품이 아니라, 상품이다. 한마디로 이 전시(말하자면 상품전시회)는 이것을 북한에서 가져온 측이 신문사의 동의를 구해, 예술의전당 측에 대관 신청을 하여 돈을 주고 전시장을 빌린 연후에, 주최측은 신문사와 더불어 전시기간 동안 열심히 판매활동을 한다. 일종의 비즈니스인 것이다.

각종 언론사를 낀 공연행사와 마찬가지로 미술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행사들은 그 후에도 줄을 이었는데,

결국으로는 각종 언론사가 주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무역회사가 그 주역이다. 굳이 말하자면, 다른 분야와 달리 거의 처음 선보인 북한의 미술품이 공식적인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여지고, 거래,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미술품들은 상품으로 북한에서 사들인 것이거나 무역 거래의 부산물로 입수되었다가 앞서 소개한 과정을 통하여 판매되는, 엄밀히 말하면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심지어 1997년에 벌어진 한 전시회는 유수의 언론사가 설립한 미술관에서 열렸고,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성황을 이룬 동시에 많은 작품이 팔렸다. 하지만, 후에 전량이 북한의 미술품을 모조한 것으로 밝혀져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는 이런 종류의 행사가 뜸하게 열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엔 차이가 없다.

이런 일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맞닥뜨린 사정과 의도가 얽혀서 벌어진 것이다. 북한이 상품으로서 남한에 자신들의 미술품을 선보인 까닭을 자세히 살피기는 어려우나 급변한 경제사정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있기 훨씬 전부터 북한은 대외 교류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금강산이나 백두산 등의 명승지를 그린 그림들이 인기리에 거래되는 현상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에 퍼져있는 동포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미술품에 대한 동포들의 선호도가 상당한 만족을 나타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남북한 간의 교류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급물살을 타게 된 후, 갑자기 악화된 경제사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북한의 곳곳에 산재한 명승지를 조선화와 유화로 그린 그림들을 거의 대량 생산하다시피 하여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무역거래에 나선 실무자들을 통해 남한의 대중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대표성 문제가 교류에서 장애로 나타났던 사례

그러나 남한에서 유사한 성격의 북한 미술 전람회가 거듭되자 나타난 반응은 초기의 환영분위기와 분명 달랐다. 초기에는 열광적이다시피 반응을 보였던 실향한 월남민이나 재외동포들조차 이내 식상하게 되었으며, 일반적 대중은 더했다. 이런 현상은 남한보다 훨씬 일찍부터 북한

의 미술품을 선보인 일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사회에서 이미 나타났으나,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남한에서는 북한의 미술품이라면 개성 없이 천편 일률적이며, 대량생산된 느낌으로 사진과 다를바 없는 즉, 화가 개인의 시각이나 특징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 결과 북한의 미술품은 싸구려 상품과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최근 수년 간에는 그나마 이루어지던 전시행사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실질적인 교류라 할 행사는 시도되었다. 1993년 10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5, 6일에 걸쳐 개최되었던 코리아통일미술전이 그것이다. 남한의 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의 민족미술인협회와 북한의 조선미술가동맹 소속 화가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총련계 화가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그림 100여 점을 선보인 전시였다. 출품작은 좀더 공식적이어서 서로 공감할 요소를 존중하여 출품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림의 종류를 표기하는데 있어서도 전통매체에 의한 그림은 남북한과 동포 미술가들에게 두루 민족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창안이어서 돋보인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 동양화라는 명칭을 강요당했으나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던 남한의 경우 근년 들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화라는 명칭이다. 북한의 경우 국명에 의거, 조선화라고 하여 유사성 보다는 개별성이 두드러졌다. 이 전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공통의 그림의 종류명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유화의 경우, 남한은 서양화라는 명칭을 표기하였는데, 이는 물론 아직도 남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류명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통매체에 의한 그림의 경우 궁리를 거듭한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채택하여 공유한 반면, 남한의 유화에 굳이 서양화를 적용한 것은 남한측의 의사였던지 아직 알지 못하나, 고심의 흔적이 덜하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일본에서만 열렸을 뿐, 정작 중요한 남북한의 전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남북한의 미술가들이 합의하여 일본에서 전시를 시작하고 남한에서도 전시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곧 다시 얼어붙다시피 한 정세의 문제도 있었고, 국내전이 이루어

지기 힘들게 된 자체의 결합도 없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즉 북한과 재일본 총련 소속의 미술가들의 경우 단선적인 구조인 탓에 대표성에 문제가 없지만, 남한의 경우 북한이나 총련과 달리 복선적인 남한의 미술사회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단체 소속의 화가들만으로 구성하여, 국내전을 열었을 경우, 이의가 제기되어 순수성을 훼손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접한 당시는 물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도 들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다.

바람직한 남북의 미술교류를 바라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전시를 좀 자세히 살펴면서 드는 생각은 아쉬움, 착잡함이다. 남북한을 둘러싼 환경이 분단된 당시나 지금이나 급변하고, 상황을 종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북한 각자가 내외적으로 주어진 통일 분위기에 의지하여 이전과 달리 더욱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민족을 통합하고, 나아가 통일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로가 처한 환경이 다른 탓에 이런 좋은 의도는 곧잘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마는 것이 실정이다.

이를 남북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좀 더 질 높은 교류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의 사정을 좀더 섬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먼저 북한의 경우, 앞서서도 잠깐 비추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미술의 총론적으로 말하여 하향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갑자기 닥친 상황이 워낙 급박하지 않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미술작품을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품목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품으로 교류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하였다.

상품으로서의 북한미술품의 특징은 명승지를 풍경화와 민속을 소재로 다룬 풍속화적인 성격의 그림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종류의 미술품은 일정한 수요를 채운 뒤에는 냉랭한 반응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어, 미술 고유의 창조성, 화가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화면을 드러내는 것을 선별하여 공식적인 교류나 특히 상업적 교류에 선보이기를 바란다. 주체화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지난날 북한의 미술이 지닌 관성이 있을 것이므로 얼마나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이런 요구에 맞추지 않으면 북한의 문화 산물로서의 미술, 특히 그림에 대

한 외면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한의 경우, 좁은 이데올로기적 시야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여겨진다. 과거 오랫동안 명백히 수세였던 정치적, 경제적 처지에서 20여년 전부터 급변한 세계정세에 따라 지금은 명백하게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경제사정을 위주로 하여 남한은 자신을 갖고, 관대한 자세로 북한의 미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지 말고, 실정 그대로,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까지도 고스란히 남한의 대중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과거 냉전적인 대결이 압도적이었던 환경에서 입력된 심리상태를 하루빨리 오늘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북한의 과거 미술은 물론, 오늘날의 미술까지 선보이고, 연구하여 과거 북한이 좋은 환경을 맞아서 이룩한 업적을 되새김질해 자기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일찍이 확립한 조선화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양화라는 종류명을 벗어나 온당한 명칭을 사용하게 된 사정, 나아가 이를 자기화하는 과정은 분명 지금의 우리에게도 크게 도움됨은 물론, 우리 문화를 위해서, 나아가 통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유화를 서양화라고 하는 문화단위는 남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까지도 적어도 양화라는 용어를 벗어난 지가 오래다. 앞서 약간 소개했듯이 전통회화의 경우에도 정체명을 그림의 종류명에 반영한 것이 늦은 것은 물론이지만, 아직 국립대학에서 학과명으로 동양화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경우를 고찰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알 수 있게 된다. 동북아 여러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경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보편적이고 온당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술사 인식에서도 북한의 미술사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와 용어사용은 눈 여겨 볼 바가 많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작품의 교류와 더불어 미술가는 물론 미술이론가의 교류는 시급하다.

남북 미술교류의 방법들

마지막으로 미술분야의 교류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만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우, 지상에서 교류를 실현한답시고 남북한 각기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여겨진 미술작품을 모아 게재하는 기사를 만든 경험이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쉬우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고전미술의 경우 더욱 가능하고, 나아가 분단 이후 각기의 대표작을 모은 전시에서도 가능하지만, 남북한 주요 도시에서 순회하는 전시를 가지기를 염원한다. 북한의 조선미술박물관은 이런 요구를 단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미술관이다. 이미 일본에서 발행된 도록을 참조하면 이런 구상이 더욱 다가오리라 여겨진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중요 수집품 중에서도 이런 구상은 가능하다.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론, 사설인 간송미술관과 삼성미술관의 수집품들은 진작 남한의 주요도시에서 순회전시 되어서 문화적 통합을 기했어야 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물론 박정희 군사정권이 일찍이 일본과 북미, 유럽을 순회하는 한국 미술전을 감행한 이후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기획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남과 북의 교류를 위한 기획도 있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은 남북 모두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대시기에 당한 지독한 식민경험과 이어진 분단, 국제적 규모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적대적 분위기에서 강요된 체제 경쟁으로 각자의 국민은 물론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통합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일찍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문화를 통사적으로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함으로써 정체성을 굳게 하고, 확인하고 있음과 비교하면 더욱 절실하다. 중국의 경우, 반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국가구성원 누구나가 인식해야 할 문화적 자산을 도록으로나마 출간하여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런 움직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분단된 각기는 물론 남북한 전체를 무대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진다. 남북한의 미술교류도 이런 측면을 참조하면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